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유명 건축가 영입한 경북도, 세계적 건축물 탄생시킬까 배병길, 김영준 건축가 영입...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도 공공건축 및 도청신도시 조성에 명품 건축 새바람 기대	건축디자인과	사진별첨
② 경북도, 외부청렴도 우수 시군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면제 지난해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감사 면제 또는 강화	감 사 관	
③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7일(화) 포항시청 대회의실... 전문가 등 주민의견 수렴 경제부처와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역위산양동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 사업되어야	과학기술 정책과	
④ 경북도, 중소기업과 함께 청년일자리 만들기 새바람! 지난해 285개에 이어 올해 445개 등 총 730개 청년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지원으로 청년실업 낮추고, 기업경쟁력 높이고	중소벤처 기업과	사진별첨
⑤ 경북도, 임업인 산림소득사업 공모... 내달 28까지 접수 내년도 635억원 규모... 산림소득 485억원, 가공유통 150억원	산림자원과	
⑥ 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국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	보건정책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 이철우 도지사, '5월 직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 가져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 이철우 도지사,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5. 6(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 성 자	과 장	강 성 식		
			팀 장	황석호	주무관	이경미
		연 락 처	054-880-4016			

유명 건축가 영입한 경북도, 세계적 건축물 탄생시킬까

- 배병길, 김영준 건축가 영입...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도 -
- 공공건축 및 도청신도시 조성에 명품 건축 새바람 기대 -

경상북도가 최근 저명한 건축가들을 잇달아 영입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배병길 총괄건축가를 위촉한 데 이어 2일에는 경북 개발공사에 김영준 건축가를 도청신도시 건축코디네이터로 위촉했다. 이들은 각각 한국건축 1세대 거장인 건축가 김중업과 김수근의 제자들이다.

배병길 총괄건축가는 건축가 김중업의 제자로 한국건축가협회장과 한국 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을 지낸 저명인사다. 2017년에는 ‘건축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UIA(국제건축가연합) 세계건축대회의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자연과 인간, 건축의 상호 배려를 중시하는 ‘염치의 미학’을 추구하며 대표작으로는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학의재 등이 있다.

배 건축가는 경북도의 공공건축을 총괄하게 된다. 도청신도시 조성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14개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도 담당한다.

도는 그동안 산하기관별로 각자 공공건축물을 건설하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는 도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팀이 직접 맡기로 했다. 배 총괄 건축가는 무미건조한 공공청사가 아니라 아름답고 수려한 디자인을 입혀 예술작품화를 추진하고 향후 도내 역사적 건축물들과 함께 ‘경상북도 건축기행’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준 도청신도시 건축코디네이터는 건축가 김수근의 제자로 최근까지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활약했다. 파주 출판단지 조성을 총괄했으며 그의 작품이자 박찬욱 영화감독의 자택인 ‘자하재’는 한국 건축 최초로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의 영구소장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청신도시 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그에게 참석자들은 큰 기대를 나타냈다. 김 건축가는 “팽창하던 시대에는 천편일률적인 도시를 빨리 빨리 복제해야 했으나, 안정의 시대인 지금은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도청신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경북도의 참신한 시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이 도지사는 배병길 총괄건축가 위촉으로 세계적인 건축 작품을 만들어 경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하고자 한다. 광역도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한 것은 경상북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경북에 연고가 없는 김영준 건축가를 도청신도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는 것도 이 도지사의 작품이다. 이 도지사는 당초 평소 친분이 있던 승효상 건축가에게 도청신도시 총괄을 제안했다. 승 건축가는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지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경주 솔거미술관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직접 담당할 수는 없지만 김 건축가를 추천하면서 함께 명품건축을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김 건축가에게 “도청신도시 자체를 관광 자원화 하고 인근의 하회마을과 함께 훗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 만한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붙임 사진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프로필

- ▶ 성 명 : **승 효 상**
- ▶ 출 생 : 부산광역시
- ▶ 출생년도 : 1952년
- ▶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 학 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대학원)
 - 오스트리아 빈공과대
- ▶ 경 력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 제4회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초대)
- ▶ 출 강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객원교수
- ▶ 수상내역
 - 제1회 한국패션100년 어워즈 패션플러스분야 건축부문(2011)
 - 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01)
 - 한국건축가협회상(1991)
- ▶ 저 서
 - 빈자의 미학, 보이지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 기재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업무 수행

경상북도 총괄건축가 프로필

- ▶ 성 명 : 배 병 길
- ▶ 출 생 : 경북 김천시
- ▶ 출생년도 : 1956년
- ▶ 경상북도 총괄건축가



- ▶ 학 력
 -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UCLA)
 - 중앙대학교
- ▶ 경 력
 - 배병길 도시건축연구소 대표
 - 제30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김중업 건축연구소
- ▶ 출 강
 - 경기대 건축공학과, 산업대학원 대우교수
- ▶ 수상내역
 -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2018)
 - 대한건축학회 건축 작품상(2011)
 - 제1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2005)
 - 제7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1996)
 - 서울특별시건축상 '갤러리 현대' (1996)
- ▶ 작품활동
 - 학의재(단독주택,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 현대갤러리, 국제갤러리 (전시시설, 서울시)

*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라 19.4.16 경상북도 총괄건축가 위촉

경상북도개발공사 건축코디네이터 프로필

▶ 성 명 : 김 영 준

▶ 출 생 :

▶ 출생년도 : 1960년

▶ 경상북도개발공사 건축코디네이터



▶ 학 력

-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AA건축학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대학원)

▶ 경 력

- 와이오투도시건축 대표
- 現.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2대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
- '96 ~'97 OMA, Rotterdam 소장
- '90~'9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부소장

▶ 출 강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수상내역

- 한국건축가협회상(2002, 2005)
- 제16회 김수근 건축상(2005)
- 미국건축협회AIA 건축상(2008)

▶ 작품활동

- 김수근 베를린 전시회 큐레이터(2011)
- 제5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큐레이터(2011)
- 제주 델픽대회 건축분야 감독(2009)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사업 건축디자인 방향과 지침에 대한 자문·조정 역할 수행
및 디자인특화단지, 호민지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조정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5. 6(월)】	담당부서	감사관			
		작성자	감사관	이창재		
			팀장	최정우	주무관	김진영
		연락처	054-880-4368			

경북도, 외부청렴도 우수 시군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면제

- 지난해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감사 면제 또는 강화 -

경상북도는 도민이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정부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경주·영천시 등 하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교육 실시 등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인 칠곡군은 특정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도 제고 및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올해 건설분야 특정감사 강화방안으로 ▲도(사업소 포함) 직접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청렴 및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로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53건을 처분요구하고 41건에 대하여 6,032백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 제고와 안전경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사전 예방적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시·군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시군별	청렴도 (등급)			'19 기동감찰 계획			비고
	종합	외부	내부	대상	강화	경감	
계				7곳	5곳	1곳	
포항시	3	4	3				
경주시	5	5	4	◎	◆		
김천시	3	3	4				
안동시	3	3	3				
구미시	5	5	3				
영주시	4	4	4				
영천시	5	5	3	◎	◆		
상주시	3	4	2				
문경시	5	5	3	◎	◆		
경산시	3	3	2				
군위군	2	2	3				
의성군	3	3	2				
청송군	3	3	3				
영양군	3	3	3	◎			
영덕군	4	4	4				
청도군	2	2	3				
고령군	3	2	4				
성주군	4	4	2	◎	◆		
칠곡군	2	2	2	◎		◇	
예천군	2	3	2				
봉화군	5	5	3				
울진군	3	3	2				
울릉군	5	5	4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5. 6(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 7일(화) 포항시청 대회의실... 전문가 등 주민의견 수렴 -
- 경제부지사,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 사업 되어야 -

경상북도는 7일(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전문가와 민간기업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7월말 지정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 영일만 1,4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 예정면적 : 1.98km²
 - 지정기간 : 2019. 7. ~ 2023. 6.(4년)
 - 주요내용 : 폐 배터리 진단 및 관리
 폐 배터리적용 ESS개발 및 상용화
 폐 배터리 자원회수
 - 규제 특례 및 샌드박스 : 실증특례 7건, 메뉴판식 규제 특례 3건
- ▷ 사 업 자 : 6개 특구사업자 및 12개 협력사업자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대기환경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리사이클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 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 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8일(수) 개최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특구계획을 확정 한 후 5월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특구계획 공고기간(4.22 ~ 5.22) 중 주민의견 제출(4.29~5.22)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 3일(금)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3건의 특구계획안에 대해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5일(수) 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로 발생하는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전기차 배터리 수거를 통한 재활용 및 핵심 소재 추출 산업
- 친환경차 공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리사이클 문제 선제적 대응

□ 추진경과

- 도 자체 특구별 관계부처(환경부 등) 사전협의 진행 (~3.2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전신청(3.22)
 - * 한호산업(의료용 전동카트), 에코프로GEM(배터리재활용) 등 핵심기업 동행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주재 특구계획 사전협의(3.28, 4.4)
- 중소벤처기업부 1차협의 대상 선정(4.17)
-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4.22)
 - * 공고기간(4.22~5.22) 내 공청회(5.7) 및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5.8)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1차 분과위원회 개최(5.3)

□ 향후일정

- 중소벤처기업부 2차 분과위원회 개최(5.15)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제출(5월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예정(7월말)

□ 기대효과

- 정책적 파급효과 : 중앙부처 배터리 처리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산업부, 환경부와 협력을 통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가능성 증대
- 경제적 파급효과 : 특구지역 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내 기업유치 : 역외 기업의 특구사업자 참여로 지역 내 투자 예정
 - * 일선모터스(군산), 성일하이텍(경기), Li-cycle(캐나다) 등
 - 일자리 창출 기대 : 2030년까지 약 1,000여명 이상의 포항지역 일자리 창출
 - * 에코프로GEM(600명), 피플웍스(100명), 성일하이텍(250명), 단석산업(100명)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5. 6(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기업과			
		작성 자	과 장	이 근 식		
			팀 장	김창호	주무관	신명섭
		연 락 처	054-880-2683			

경북도, 중소기업과 함께 청년일자리 만들기 새바람

- 지난해 285개에 이어 올해 445개 등 총 730개 청년신규채용 지원 -
- 청년일자리지원으로 청년실업 낮추고, 기업경쟁력 높이고 -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올인(all-in), 민선7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730개를 만들며 중소기업 청년 채용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양질의 일자리 : 월 급여 200만원 이상 정규직

작년 7월부터 경북도는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에겐 우수청년을 채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채용 청년 1인당 월 2백만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2018년 285개에 이어 올해 4월 현재 445개의 양질의 청년일 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으로 활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 청년채용의 수많은 모범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섬유 소재 제품을 개발하는 (주)원텍스(구미시, 대표 고인배)는 그동안 연구원의 인건비가 높아 신소재 개발역량을 갖추 수 없었지만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원을 채용해 연구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주)리코디오코리아(포항시, 대표 김재훈)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수출 100만불을 목표로 해외영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오리온엔이에스(구미시, 대표 유성재)는 타 지역 국책연구소 근무 경력의 청년을 채용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미래선도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주)대성메탈(경주시, 대표 김기태)은 전기엔지니어 청년을 채용하여 안전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으로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면서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젊음이 넘치는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사진자료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추진현황

- ❖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 인구감소, 청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으로 지역 활력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비 : 18,007백만원(국비 8,854 도비 3,691 시군비3,691 기타1,771)
- 일자리 : 730명(18년 285, 19년 445)
- 참여대상 : 도내 중소기업/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청년에게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
- 취업청년 인건비(1인당 월200만원 2년간, 2년후 완전고용 조건) 지원

□ 청년일자리 만들기 결과

- 전체 일자리 : 730명

합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730	74	60	36	44	168	27	43	15	32	81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비고
4	8	1	8	14	14	31	59	5	6	

-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은 선정자 없음
- 영양, 봉화는 신청 없음, 울릉은 1개 업체 자격미달로 탈락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청년 채용지원으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
- 우수인력 확보, 일자리매칭사업 확대추진, 기업경쟁력 강화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5. 6(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배기현	주무관	황현장
		연 락 처	054-880-3601			

경북도, 임업인 산림소득사업 공모... 내달 28까지 접수

- 내년도 635억원 규모... 산림소득 485억원, 가공·유통 150억원 -

경상북도는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과 산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에 485억원 규모(개소당 10억원 이내)로 경북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희망자 및 단체는 6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도에 신청,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 후 8월중순경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임산물클러스터,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에 1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내달 7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7월초 도에서 사업계획과 현장심사를 거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최종 평가를 통해 8월말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생산단지규모화 3개소, 가공·유통분야 3개소, 산림조합특화사업 2개소,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등의 공모사업에 1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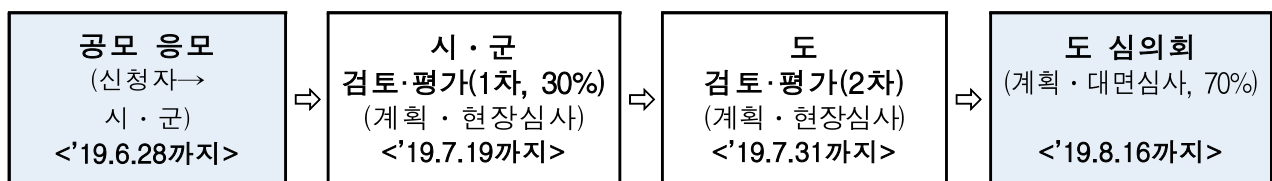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한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여 산림소득 증대와 임산물 6차산업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임산물 생산과 유통으로 고소득을 올려 귀농·귀산촌인들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0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억원)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635	268	166	200		
임산물 클러스터	2	40	20	20	-	50:50: -	개소당 20억원 이내
산지종합유통센터	7	70	34	14	21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 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총사업비의 1/3
가공산업활성화	2	40	20	8	12	50:20:30	개소당 2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	135	54	54	27	40:20:40	개소당 10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	-	350	140	70	140	40:20:40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추진 일정 및 절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5. 6(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사무관	구자숙	주무관	이은숙
		연 락 처	054-880-3778			

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국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 -

경상북도는 5월 2일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지난해 경북에서는 38명(전국 25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다.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 : 1mm)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모습

<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수풀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농촌지역 고연령층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밭, 산,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옷, 장화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활동 전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은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수칙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 하는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보급, 예방교육·활동 및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련 Q&A
3. SFTS 예방 포스터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3 SFTS 예방 포스터



1. 어떻게 예방할까요?

★ 진드기 접촉 피하기

- 밝은 색 간 옷 착용
- 돗자리, 기피제 사용

★ 접촉 진드기 제거

- 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

★ 조기 진단·적기 치료

-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2.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조기진단 · 적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
- 피로감, 근육통, 오한, 기침, 가래 등



3.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위험한가요?

★ 물이 있는 모든 곳

산 인근 농경지(논, 밭), 산(畵), 공원 등

★ 야외활동(등산, 여행 등) 시, 임산물 채취, 농작업 등



4. 진드기 매개감염병이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쯤쯤가무시증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가 관여 가해하면 등위나 야생동물 대신에 무연히 사람 몸에 붙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행일 2018. 4. 23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 7일(화) 오전 7시 2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양영훈 여행작가를 초청해 「성공한 여행자와 축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5월 직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 가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 7일(화) 오전 10시20분 도청 동락관에서 ‘5월 직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다.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 7일(화) 오후 2시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을 시상한다.

□ 이철우 도지사,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 7일(화) 오후 3시 도청 홍익관에서 열리는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에 참석한다.